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김창국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7층 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3-4745 인터넷 홈페이지/ 나우콤/ PSPD

수 신 각 신문사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제 목 논평/ 한보사건 수사에 대한 우려
날 짜 1997. 4. 4. (총 2 쪽)

참 여 연 대 논 평

한보사건 수사, 더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한보사건 수사를 맡고 있던 대검 중수부장을 경질하고 6명의 검사를 보강하여 재수사를 시작한 지 2주일이 경과했다. 수사 도중 책임자를 문책하며 교체하는 사태를 검찰은 스스로 치욕으로 받아들이고,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요청에 상응하는 정도의 결과를 내보이겠다는 결의로 새출발을 한 지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으나, 종전의 수사결과에 비추어 뚜렷한 성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다시 미봉의 봉합이 모색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검찰이 재수사의 성과라며 의욕적으로 내놓은 결과는 첫째 정태수 일가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둘째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의 삼남 정보근 회장의 구속, 셋째 한이현 이석채 전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의 개입사실 조사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재수사의 성과가 아니라 종전 수사팀이 이미 확인해 놓은 사실을 일부 공표한 것에 불과하다. 즉 새 수사팀이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새로운 사실을 밝혀낸 것이 아니라 전 수사팀이 밝혀 놓고 정치적 거래에 의해 덮어 두었던 것을 일부 드러낸 의미 밖에 갖지 못하는 것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새 수사팀은 종전 수사에서 드러난 2천억과는 별도로 한보그룹이 94년 이전 계열회사들로부터의 차입금 형식으로 2천억원대에 이르는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했고 그 증거도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새로운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시일을 지체하는 것은 검찰의 수사의지에 대해 또 다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비자금이 여당의 대선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사실만 확인하면 더 머뭇거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경위로 제공된 돈은 정치자금이 아닌 뇌물이라는 사실은 이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의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로 확인이 되었지 않는가.

또한 전현직 은행감독원장이나 시중 은행장들의 처리에 있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이미 참여연대에서는 시민들과 함께 은행감독원장들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로, 은행장들에 대해서는 특경법 위반(업무상 배임)으로 고발을 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재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의문들을 제기하는 것은 조금증의 소리만은 아니다. 신임 중수부장이 취임하면서 이들 사건에 대한 수사내용과 진척 등을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재수사를 하게 된 중수부 수사팀을 「드림팀」이라고까지 추켜세우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화려한 명칭이 단지 기대를 실어서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지금 수사팀의 능력을 바로 표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다.

더 머뭇거리다가는 더 큰 정치적 경제적 파국을 초래하고 만다는 것은 그동안의 거듭된 경험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오로지 공명정대한 수사의 결과만이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검찰의 신속하고도 공평무사한 태도를 거듭 촉구한다. 끝.